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벤엘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성경: 창세기 35장  
1-7절

Tag:

1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벤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 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2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3 우리가 일어나 벤엘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4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5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6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벤엘에 이르고

7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엘벤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낫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창35:1-7)

야곱의 이야기는 험악한 인생경험이 담긴 모습이 많다.

우리가 오늘 읽은 35장 바로 전 33장에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34장에는 하몰의 아들 세겜의 디나 강간사건과, 레위와 시므온의 세겜족속 도륙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33장에는 형 에서로부터 벗어나려는 야곱의 노력이 처절하게 묘사되어 있다. 반면에 34장에는 디나로 인한 세겜 족속 도륙 사건은 악

랄하며 아말렉 스텝기까지 하다.

33장은 곤경에 처한 야곱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고, 34장은 분노하고, 근심하고, 이성을 잃어버린 지극히 세속적인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33장을 스트레스를 겪은 이스라엘은 34장에서 ‘누아르’(Noire)스러운 분노가 폭발함으로 정처없이 떠도는 나그네 민족으로서의 비애를 처절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런 강간 사건을 성경에 기록된 것 자체가 당혹스러운 일인데 성경 기자는 매우 솔직하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 같았으면 절대 이런 이야기를 후대에 남기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야곱은 33장에서 형 에서와의 만남을 기도로, 지혜를 모두 짜 내면서, 겸손으로, 지극정성 선물공세로, 여러차례 사절단을 미리 보냄으로, 극도의 두려움으로 별별 떨면서, 그러나 천사와는 죽기를 각오하고 씨름함으로 위기를 가까스로 극복하는 모습을 그려내었다.

그러나 34장은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되어 막장 드라마 한편을 보는 듯한 세속적인 전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먼저 야곱은 짐승들을 살찌울 수 있는 적지를 만나게 된다. 그곳이 맘에 들었던지 야곱은 우선 땅(밭)을 매입한다(상당히 넓은 땅이었을 것이다). 아마 야곱은 그곳이 마음에 들었고, 그곳에서 터를 잡고 놀러 앉을 생각까지 했을지 모른다. 단순히 장막 터 사용을 위한 임대료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장막을 친 밭을 아예 매매를 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분위기를 보니 아마도 별 일 없으면 이곳에 놀러 앉을 생각까지 했던거 같다.

-야곱은 딸 디나가 그 주변 아가씨들과 친구삼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어차피 서로 무역하며, 문화적 교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정착한 것이다. 물론 딸이 강간 당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

왔을 것이다.

-디나는 세겜 사람들의 패션이 매우 마음에 들었고, 아마 촌 사람 서울 사람 보는 듯 했겠다.

-세겜 사람들도 적대적이지 않았고, 세겜 사람들 입장에서야 곁의 식구들이 부자처럼 보였을 것이다. 뭔가 동상 이몽 상황이었을 것이다.

-긴장이 풀린 야곱은 대부분의 업무를 아들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집안을 다스리는 중요한 일에 몰두하였을 것이다.

-그는 디나의 잦은 외출에 대해서 크게 신경쓰지 않은 듯 하다.

-그러나 디나는 젊었고, 패션에 민감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그 지역 젊은 여인들과 어울렸고, 그들의 패션을 따라 하였다.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도 그런 디나가 마음에 들었고, 어느 정도 친해졌던가 보다. 일주일 많아도 한달 이내에 사건이 발발하였지 않았겠나.

-세겜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디나를 끌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서 강간하고 말았다.

-그리고 디나를 감금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뻔뻔하게 아버지를 앞세워 야곱에게 찾아와 결혼 하겠다고 하였다.

-세겜족속의 태도는 매우 오만불손하고, 겉으로는 야곱의 가족을 무시하는 태도였으며, 디나 때문에 물질공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결혼이란 단순하지 않다. 하물며 딸을 성폭행하고 감금하고, 사죄하기는커녕 물량공세만 해 대는 태도는 조직폭력배보다 더 야비하고 치졸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자칫 잘못 했다가는 집안 전체가 망할수도 있었다.

-세겜의 이런 경솔한 태도는 세겜 족속의 수준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세속적이며, 분별력이 없으며,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단순하고 유아적이며, 욕심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당황한 야곱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목축하는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만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예나 지금이나 딸이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보통 아버지와 오빠들은 이성을 잃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12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야곱은 자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들들과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마침내 아들들이 돌아왔고, 상황은 험악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칠 없는 세겜은 서로 통혼하며, 우리가 같은 민족이 되기를 간청했다. 빙물을 달라는 대로 줄터이니 염려하지 말라 하였다.

-야곱의 가족에게는 빙물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속으로 울분을 삼키고 있었고, 딸과 여동생을 유린당한 보통 오빠들이 갖게 되는 복수심으로 가득했다.

-순간 그들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과 통혼할 수 없다는 말을 하였다. 만약 당신들이 우리와 한 민족이 되기 원하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겜은 흔쾌히 승낙하고 본 성으로 돌아가 동료 족속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할례만 받으면 서로 통혼하게 되고, 저들의 많은 재산도 결국 우리것이 될 것이라고 감언이설을 늘어 놓았다.

-이들은 다른 민족의 여자를 성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까지 탐내고 있었다.

-순진한 세겜족속들은 그 말에 욕심이 발동하여 모두 흔쾌히 할례를 받고, 상처가 아물기까지 끙끙대고 있었다.

-가장 아픔이 극심한 3일째 되는 날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차고 성에 들어가 모든 남자를 죽이고 디나를 데려왔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을 모두 이끌고 가서 성을 도륙하고 약탈하고 아이들과 여인들을 잡아서 노예를 삼았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노하였으나, 아들들은 그들이 우리 여동생을 창녀처럼 취급했으니 우리가 그리 하였노라고 하였다.

-지도를 보면 야곱이 압복강을 건너고 숙곳을 거쳐서 세겜으로 간

이유는 아마도 가축들을 먹일 초원을 찾아서 그리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 행선지는 베엘로 야곱이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기로 서원했던 땅이다.

-그런데 야곱은 세겜을 보고 마음에 들었던지 그곳에 장기간 머물 생각을 한 것이다. 그러다 이 사달이 난 셈이다.

-물론 단초는 세겜이 제공했지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야곱의 아들들은 일을 크게 저지르고 말았다.

-세겜이 잘못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족속을 진멸하기까지는 너무한 것이다. 게다가 아말렉처럼 모든 것을 약탈하고 남겨진 약자들을 노예로 삼았으니 무엇을 더 논하리오.

-이게 당시 사회에서는 통했을지 모르나, 인근 족속들과 전쟁이라도 일어날만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후에도 이들의 악행은 계속되었고, 이제 자라나서 청소년이 되어가는 요셉의 눈에 그런 모습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었다.

-요셉은 야곱이 나이가 지긋할 때 얻었고 사랑하는 아들이었으므로 충실한 가정교육을 하였다. 다만, 레아가 아들들을 낳는 동안에는 야곱이 목축업에 힘 쏟느라 가정교육을 등한시 하였고, 더구나 사랑하지 않는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라 별 사랑을 쏟지도 않았다.

-어쩌면 예견된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후 이들은 요셉을 팔아 먹고 아버를 속이는 짓까지 벌이는데, 결국은 애굽에 내려가면서 철이 들게 된다.

-아무튼 디나 사건으로 야곱도 크게 단도리를 하게 되고, 아들들도 더 이상 험악한 짓은 하지 않게 된 것 같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 가족을 위로하는 말씀을 하셨다.

-이제 베엘로 올라가라. 그곳에 거주하며, 네가 서원한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정신 차린 야곱은 2절에 자녀들과 모든 종들에게 경건할 것을 명하였다.

-너희는 이방 신상을 모두 버리라.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너희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의복을 빨아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으라. 이곳에서의 어둡고 처절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불필요한 것들, 우상들은 모두 땅에 묻어 버리자.)

-우리가 베엘로 올라가자.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식솔들에게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분명히 하였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실천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을 끌어당긴다.

-그러자 5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식구들을 도와 주셨다.

5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경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 당기는 효력이 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아무도 야곱을 추격하는 자들이 없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은 베엘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한 서원을 갚았다.

-야곱 족속은 압복강가에서 한 고비를 넘겼고, 세겜에서 또 한 고비를 넘기면서 극도로 예민하고 불안에 떨 수 밖에 없었다.

-자신들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죄악 앞에 어찌할바를 모르고 자신들은 이제 전쟁에 휩싸이며 보복을 당하게 될 줄 모른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그 때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경건을 회복하였으며, 서원을 이행함으로 그 모든 환난과 정신적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경건은 혼란되지 않으면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연약해서 세속적인 죄에 빠지기 쉬우나,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자.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경건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회복을 기대하자.

-야곱 가족도 회복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적어도 에서와 같이 완전히 세속적인 삶으로 돌아서는 삶을 살지는 않았기에 멸망을 모면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모든 문제에 경건은 해답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된다. 우리 모두 경건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산 아래에 들어가자.

아멘.



<찬양예배>

제목 : 밀려 갈 것인가, 뚫고 갈 것인가 성경: 요한복음 21장 17-22절

Tag:

17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8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20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21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요21:17-22)

-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하자.
- 젊어서는 사서라도 고생을 하고, 인생의 목표를 남을 돕는데 두자.
- 우리가 직업을 갖는 것은 남을 돕기 위함이다.
- 대부분의 직업은 당신이 하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나는 당신을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만 필요합니다. 라는 정신이 담겨있다. 흔히 나의 직업은 당신에게 빨대를 쬐는 것입니다. 라는 정신이 담겨 있다면, 곧 들통나 망하게 된다.

(호구들의 비밀과외;상조회사)

-왜 상조회사가 자주 망하는가? 봉사정신이 부족해서다.

-그들은 유족의 슬픔을 이용해서 그들을 호구 삼는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당했구나~ 고 느끼게 되고 괴씸하게 생각한다.

-밀려 가는 것;세속에 밀려 가는 것

-뚫고 가는 것;세속을 뚫고 자신의 소신껏 목적을 향해 가는 것.

-젊어서는 스스로 떠 댕고 원하는 곳으로 다녀야 한다.

-스스로 인생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젊어서 스스로 떠 댕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삶을 개척하는 것은 자신이 성장해 가는 과정이다.

-수많은 도전과 실패 속에서 마침내 스스로 홀로서기를 이루게 된다.

제임스 카메론 그가 꿈을 이루는 방법

학창시절 왕따, 31세까지 트럭 운전사, 꾸준히 자신만의 시나리오을 씀, 자신의 시나리오를 영화사에 1달러에 팔고, 대신 자신이 연출을 맡기로 함. 영화사는 고민 끝에 허락하고 제작된 영화가 터미네이터 1, 그후 그는 에일리언, 타이타닉, 아바타를 만듦.

자동차 판매 왕 조 지라드

술주정뱅이 아버지의 학대 때문에 고등학교 중퇴, 35세 되기까지 직업이 40곳의 직장 전전, 첫 번째 직업은 구두닦이, 어느날 신기한 사실 발견, 결혼식 하객, 장례식 조문객이 평균250명. 한 사람이 미칠 수 있는 인간관계의 범위가 250명이라는 설. 250법칙. 한사람의 고객에게 신뢰가 생기면 250명의 잠재고객이 생긴다. 반면 한 사람의 고객에게 신뢰를 잃으면 250명의 잠재고객이 사라진다. 1명을 250명

처럼 대우한 그는 성공함.

12년 동안 매일 5대의 자동차를 판매함. 기네스 북에 오름.

뇌성마비 장애인 빌 포터.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으려 함. 그는 생활용품회사 '왓킨스'사 영업사원직에 도전.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지역에 보내 달라고 졸랐다. 사람들은 동정하려고만 하지 물건을 사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동정을 거절했다. 어머니는 그가 포기하지 않도록 꾸준히 도와주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인내를 가르쳤다. 어머니의 샌드위치 '인내' '끝까지 인내하기' 새겨짐.

그러나 어머니는 치매로 더 이상 그를 도울 수 없었다. 빌은 영업에 최선을 다하며 혹독한 홀로서기를 결심함. 빌은 사람들의 거절을 더 좋은상품으로 다시 와 달라는 신호로 받아들임. 새 상품이 나올 때마다 다시 찾아감.

24년 간 계속. 그는 마침 내 영업왕이 됨. 매일 15Km를 걸었던 빌 포터.

인내가 빚어낸 값진 열매. 느린 걸음이었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다.

여기 A라는 남자는 부모님이 입양보냈고,

대학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직장을 전전했고, 인도에서 일년간 살았습니다.

심지어 난독증도 있었습니다.

이 A라는 남자는 바로 스티브잡스입니다. 수 많은 기업 성공가들 중 35%가 난독증이 있었다. 왜냐면 이들은 사소한 것에도 귀를 기울이고, 남의 말을 귀담아 듣기 때문이다.

"흠수저와 사업적 성공의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그들은 트라우마와 역경을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받아 들었다.

은수저 이력서와 쇠주걱 이력서.

쇠주걱은 세상에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자는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쇠주걱은 자신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성장과 변화는 가능하다.

외상후 성장; 위기의 가정에 있는 아이들의 역경의 영향에 관한 연구. 698명의 표본집단의 아이들 중 1/3이 건강하고 성공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

채용 슬로건

TED: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완전' 괜찮은 사람만 채용합니다.

Netflix : 보기 드문 책임감이 있는 사람

알리바바: 실적과 협동정신을 갖춘 사냥개

자신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분명히 깨달으라.

자신의 특별한 장점 순서 나열하기.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내기

자기가 무엇을 제일 잘 하는지를 알아내기

돈 벌이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치관을 설정하라. 당신은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매일 반성하고 자신에게 질문하라. 나는 잘 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주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누군가 그 일을 하기까지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로저 베니스가 1.6Km를 4분 내로 달리기 전에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인간의 신체 구조상 4분 이내로 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두달 후 16명이 4분대를 켜다.

‘전설처럼 살아라’ 창립자. 스콧 딘스모어;모험 클럽에서 샌프란시스코 해변에서 80명의 소년들이 금문교 밑을 2.5Km 헤엄쳐 건넜다. 그는 마침내 해냈다. 그는 아직 건너지 못한 소년들이 있는지를 살피고, 매우 힘겹게 수영을 하는 소년을 보았고, 그후 그 소년의 아버지가 가서 도와주는 것을 지켜 보았다. 속을 생각하길 ‘그래 9살 어린애가 2.5Km를 수영하면 안돼’ 그런데 그는 나중에 휠체어에 앉는 것을 보았다. 그 아이는 두 손을 치켜 올리며 완주를 기뻐하였다.

주변에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는 사람은 행운아다. 그도 열정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2018년에는 사업가이자 강연자로도 나섰던 스콧 딘스모어Scott Dinsmore는 킬리만자로 웨스턴 브리치Western Breach 루트를 등반하던 중 빙하가 녹아 떨어진 낙석에 맞아 사망했다.)

-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 이제는 그동안 쌓은 이력 때문에 젊고 가난했을 때처럼 흥가분하게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주변 사람들이, 주변 젊은이들이 원하는대로 자발적으로 끌려가야 할 때가 이른다.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이제는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먼저는 자기가 원하는대로 살아보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무조건적 복종이 아무런 열정도 없고 고달픈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30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깨달으면 금상첨화.